

먼저 보는 사람이 ✨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 카퐁카우 라는 청년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가보니 화장실과 욕실이 너무나 더럽고 불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장에게 직접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좀 치워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알았네. 내가 다 알아서 조치할 테니 가 있게.”

교수님의 대답을 듣고 잠시 후 그 학생이 다시 화장실로 가 보았을 때 요란한 소리와 함께
씻는 소리, 닦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학장님이 기쁘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들어오게. 이제 깨끗해질 테니 염려하지 말게.”

“학장님, 청소부를 데려다가 시키면 될텐데 왜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까?”

놀란 학생이 학장님에게 말을 건네자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교회나 신학교는 일을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걸세.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네.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쓰레기를 보는 사람 하나하나가 청소를 할 때 우리 삶의 주변은
깨끗해질 수 있는 걸세. 자네가 부잣집 아들로 여기에 와서 보니 좀 불결하게 보이겠세.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네.

그러니 먼저 느끼는 사람이 일을 하면 이 학교는 깨끗해질 수 있는 거라네.”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 한사람 보는 사람이 그것을 고치고 바꾸고 좁고 쓸 때, 나 하나가 회개하고 나 한
사람이 겸손하게 주님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주변, 우리 모두가 조화되는 밝
은 날이 올 것입니다.

<이삭 줍는 사람 / 김상환(생명의 삶 2002년 1월14일)>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 「더 깊은 묵상」 제공